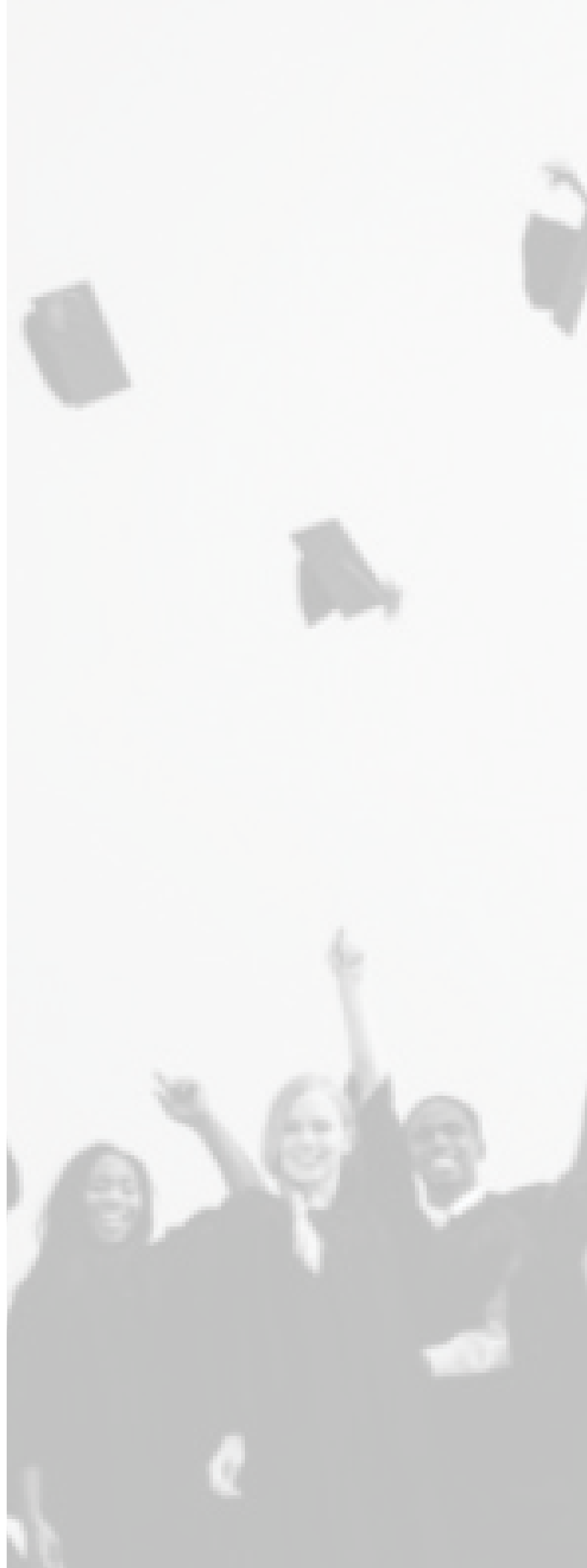
28th Annual **COMMENCEMENT**

World Mission University **Special Newsletter**

Saturday, June 1, 2019 | at 1:00 pm | The Oriental Mission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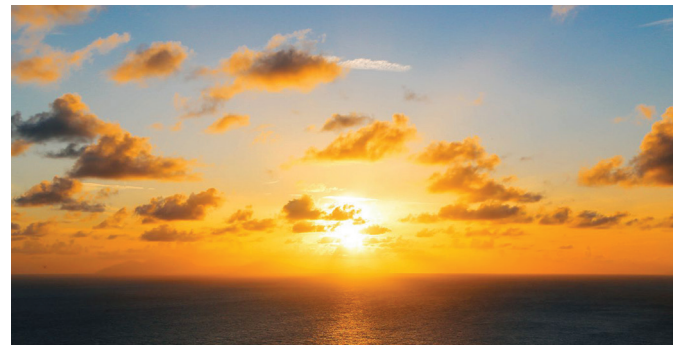
CONTENTS

"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밝은 빛을"

임성진 박사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오늘 우리는 제 28회 학위수여식을 맞이하여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합니다. 오늘 졸업하시는 83명의 졸업생들을 축하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라틴 형제 자매들이 졸업식에 동참하였습니다. 남미 사역이 이들로 인하여 새로워질 것입니다. 중국사역자와 선교사님들이 함께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선교의 거대한 사역지이지만 여러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으로 인하여 정금같은 성도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졸업생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과정을 잘 마무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졸업생 가족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가족이 한 과정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수고가 당연히 따르기 때문입니다. 후원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물질의 후원 없이는 한 사람의 사역자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과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인격적 감화와 지적인 훈련 없이는 성숙한 리더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새로운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배타적이며 폐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역지에서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그 곳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진 핍박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의 특징인 빅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등의 영향으로 인간에게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며 인간소외의 중대한 착오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기독교종합대학교로 발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타문화권 학생들에게도 교육을 시행할 것입니다. 한국어중심 프로그램을 영어권 프로그램과 함께 병행할 것입니다. 이론중심의 교육에서 이론과 사역역량의 균형을 이룬 멘토링 교육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WASC에 가입하여 교육적 질을 더욱 높이고 세계의 유수한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정진할 것입니다. 기독교종합대학교로서 만방에 복음의 빛이 비취게 할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월드미션대학교는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는 신실한 복음전파자들이 되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는(다니엘 12:3)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 축하합니다 ”

총 83명

AABS (6명) Carmen L. Choguix Karla I. Marin Yoshira Rios Liliana Tong Lizzet Vega Caludio R. Watson

AACC (1명) 남미선

BACC (6명) 김명순 백주영 서원영 유영란 이승미 장지숙

BAM (6명) 김미옥 김정애 유아성 윤요셉 이충영 임아라

BABS (9명) 금동관 김진호 손용현 송미화 송준호 이강희 이 훈 정임순 최 은

대학 (28명)

MACP (19명) 김명애 김부연 김성숙 김소영 김혜란 김희숙 남미라 라라경 박인선 백금선 이수정 이에스더 임득춘 임원숙 장지은 조미나 조현영 최명자 최미혜

MAM (8명) 김경옥 김유리 손시온 손한나 안정희 이영관 이재황 장슬기

MAT (5명) 강 석 김헌고 윤광선 이혜원 최우성

M.Div (17명) 강귀정 강동완 김석찬 박성태 박수민 박신주 박은주 박이원 박재웅 (손성덕) 오용주 우경선 이상미 이상태 이재일 이정재 지웅일 진레베카

DCM (1명) 오정근

D. Min (5명) 김학철 박군서 박미경 이성우 최 일

대학원 (55명)

2019년도 학위수여식
28 th Annual Commencement

2019년 6월 1일 (토), 오후 1시 | 인도(Presider): 신선묵 부총장

입장	(Opening Procession)	....	순서담당자, 교수단, 졸업예정자
개회선언	(Opening Announcement)	....	인도자
기도	(Prayer)	....	김현경 교수
학사보고	(Academic Report)	....	인도자
학위수여	(Conferring of Degrees)	....	총장, 부총장, 이사장
	[Degrees Granted:AABS, AACC, BACC, BAM, BABS, MACP, MAM, MAT, M.Div, DCM, D.Min.]		
축가	(Congratulatory Song)	....	김문영, 허지혜 학우
총장메시지	(President's Address)	....	임성진 총장
졸업생답사	(Graduate's Response)	....	박수민 학우
헌신의기도	(Litany of Dedication)	.... 졸업생, 회중, 교수단	인도: 김진호 학우

인도자: 이제 학위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졸업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를 당신의 뜻을 따라 인도하소서.

인도자: 졸업생 여러분,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졸업생: 교회와 세상을 위한 말씀중심과 선교중심의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인도자: 성도 여러분, 졸업생들이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회 중: 편협한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온 세상이 치유함을 받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소서.

인도자: 졸업생 여러분,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졸업생: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을 당신께 드립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당신의 충성스런 종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인도자: 존경하는 교수님들, 오늘 졸업하는 저희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단: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를 떠나 새로운 사역의 현장으로 떠나는 졸업생들을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줄 수 없었고, 저희들도 여전히 필요한 용기, 지혜, 믿음, 겸손, 온유, 따뜻한 마음을 저들에게 풍성히 주시옵소서.

인도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전 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이 경건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평화의 도구로 그리고 사랑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교가제창	(School Anthem)	.... 1절: 졸업생 일동 2절: 회중과 함께	다같이
축도	(Benediction)	....	Rev. Netz Gomez
퇴장	(Recessional)	....	다같이

학위수여 대상자 명단

AABS: Carmen L. Choguix, Kalra I. Marin, Yoshira Rios, Liliana Tong, Lizzet Vega Claudio R. Watson (6명)
AACC: 남미선 (1명)
BACC: 김명순, 백주영, 서원영, 유영란, 이승미, 장지숙 (6명)
BAM: 김미옥, 김정애, 유아성, 윤요셉, 이충영, 임아라 (6명)
BABS: 금동관, 김진호, 손용현, 송미화, 송준헌, 이강희, 이 훈, 정임순, 최 은 (9명) 대학(28명)

MACP: 김명애, 김부연 김성숙, 김소영, 김혜란, 김희숙, 남미라, 라라경, 박인선, 백금선, 이수정, 이에스더
임득춘, 임원숙, 장지은, 조미나, 조현영, 최명자, 최미혜 (19명)
MAM: 김경옥, 김유리, 손시온, 손한나, 안정희, 이영관, 이재황, 장슬기 (8명)
MAT: 강 석, 김헌고, 윤광선, 이혜원, 최우성 (5명)
M.Div: 강귀정, 강동완, 김석찬, 박성태, 박수민, 박신주, 박은주, 박이원, 박재웅, (손성덕), 오용주
우경선, 이상미, 이상태, 이재일, 이정재, 지웅일, 진레베카 (17명)
DCM: 오정근 (1명)
D. Min: 김학철, 박군서, 박미경, 이성우, 최 일 (5명) 대학원(55명)
총 83명

수상자 명단

총 장 상: 박수민, 강 석, 최 은
총회장상: 장슬기, 김소영, 강동완
교 수 상: 오정근, 김학철, 지웅일, 오용주
부총장상: 임원숙, 이강희
ABHE상: 백주영, 이 훈
이사장상: 이상태, 유아성
동문회장상: 최 은

졸업생 현황

과정	AACC	AABS	BACC	BAM	BABS	MACP	MAM	MAT	M.Div	DCM	D.Min	Total
2019	1	6	6	6	9	19	8	5	17	1	5	83
총계	7	7	67	29	337	64	72	65	345	1	11	1,005

광고

1. 2019년 제 28회 학위수여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2.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과 그 가족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3. 장내의 질서를 위하여 모든 하객과 회중은 교수단, 이사진, 졸업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교의 발전과 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주신 세계복음선교연합회, 동양선교교회, 후원자, 이사진, 동문회, 그리고 모든 교직원과 재학생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비키
학생회 회장 (2018 - 2019)

재학생 송사

'28회 월드미션대학교 졸업생 여러분 !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졸업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학업의 모든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잘 감당한 결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당당하게 서 계신 여러분은 한 매듭을 짓고 힘차게 또 다른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노력을 인정받는 졸업식은 축복의 자리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감당하면서 교회에서는 사역하고 가정을 돌보며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야로 힘쓰며 포기하지 않고 애쓰신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 오늘의 졸업이 있게 되었습니다. 과제물을 작성하는 어려움을 겪고 시험공부 하느라 총력을 기울였지만 때로는 원치않은 결과로 인해 힘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다시 공부하고 싶지 않아 힘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어 공부에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하며 격려해 주신 가족과 친구와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많은 계획과 설렘을 갖고 캠퍼스를 떠나는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말씀으로 변화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월드미션대학교의 사명대로 세계를 보며 당당히 나아가 창의적인 리더로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 고 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 하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역 할 때에도 배운 것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 주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로서 하늘나라 확장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 합니다.
사랑합니다!

졸업생 답사

먼저, 저를 죄와 사망아래 의미없는 삶으로부터 구속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진리와 진리의 실천에 관한 배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적인 신학과 그 신학의 실천과 삶의 적용을 가르쳐 주시고 독려해 주신 존경하는 교수님들, 교직원 여러분, 부총장님과 총장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우들의 배움의 상황은 비슷했을 것입니다. 매일의 삶, 섬김, 교회와 선교의 현장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것이 치열하지 않는 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참되고 영원한 진리를 배워가는 기쁨이 힘이 되었고, 그 배운 진리와 학문을 삶과 현장에서 적용을 독려하는 교수님들의 열정은 게으름과 피곤을 채찍하고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복음적인 신학과 실천, 자신에게로의 적용으로부터 세상을 섬기는 데로 나가도록 훈련한 월드미션대학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영적 사관학교 같습니다. 2013년 미국 서부의 한국계 기독교 대학으로 최초 ATS(신학대학원 협의회)인준을 취득한 학교의 명예와 위상이 실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학교라는 확신이 들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적, 학문적 역량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 제공되는 강의 내용과 분량, 독서의 내용과 분량, 토론과 매주와 기말의 과제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교수님들의 인격적인 가르침과 배움의 독려는 앞으로 교회와 세상으로 나가 배움을 열매 맺어야 할 저희들에게 귀한 모범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세계 선교의 일선에서 제 자신과 사역지에서의 현지인 선교의 필요를 위해 월드미션대학교와 같은 배움의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지난 배움은 저의 기도와 바램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너스로 이 학업의 과정에서 세계 선교의 동지들과 우정을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는 학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는 저의 마음엔 큰 바구니에 풍성한 추수의 열매들을 담아든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운대로라면, 이제 졸업은 배운 진리와 적용의 실천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졸업하는 저희들, 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의 영적인 사관생도로서 배운 진리를 더욱 강화하고 살아내고 선포하고 열매맺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 말씀으로 변화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교의 영적인 방향의 증인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저희 모두와 학교에 남아 학업을 지속할 학우님들, 또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모든 학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적인 신앙과 신학의 열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들이 되기를 오늘 졸업에 즈음하여 새롭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교의 자랑이고 명예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시루 독서클럽"

송운철 교수
Dean of Student Affairs

콩나물시루 독서클럽은 월드미션대학교 독서동아리다. 2010년 1월 둘째 주 토요일 첫 모임을 가졌고 올해로 10년째다. 두 가지 커다란 목적으로 우리는 독서모임을 시작했다.

첫째는 신학도들의 의사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신학교에 입학하면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앞으로 가르치고 선포할 contents를 채워나간다. 그러나 미래 사역자가 청중의 머리와 가슴에 가닿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인문학 고전과 신간을 읽으면서 현대 청중에게 통하는 어휘, 현대인들의 두려움과 소망에 대한 깊은 이해, 자주 사용되는 이미지와 은유, 시대의 현안과 과제 등을 접하고 내면화하고 필요에 따라 언어에 녹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영혼을 구원한다면 미래 사역자는 그 말씀을 진정 정확하고 호소력 있게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둘째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독서와 행복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반복되는 일상은 무미건조한 정서를 낳는다. 지적 자극도 줄고 내면을 가득 채우는 감정적 경험도 줄어든다. 새로운 영역으로의 탐험과 모험은 경제논리, 생존논리에 막혀 좌절당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은 위축되어 발상은 기껏 실용적이고 현세적일 뿐이다.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형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의 인간형이고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누리게 하시려는 풍성한 삶과 동떨어진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을 펴면, 인간은 범속성의 궤도를 벗어나, 보다 높은 차원으로 추진된다. 숭고한 가치, 풍부한 감성, 넓어진 생각, 기발한 발상과 상상력, 개성의 발견과 발현, 다양한 시각과 대안들을 접한다. 이는 자신의 삶과 사역을 위해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 책이 주는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 우리는 행복해진다. 책은 가격에 비해 보상이 크다 하겠다.

매달 둘째와 넷째 토요일 오전 일곱 시, 육 층 로그 카페에서 모인다. 각자 책을 읽고 sharing을 돕는 인도자가 미리 보내준 세 가지 토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온다.

책을 읽고 생각하면 새로운 지식의 등장으로 머리 속이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점차 성숙한 생각, 깊은 생각으로 나아간다. 평소의 생각 수준을 책이 끌어 올려 준다. 거듭되는 독서와 사색은 시냅스 연결망을 촘촘하게 하고 독자의 사고에 깊이와 넓이를 더해준다. 내가 책을 펴면 책은 더 나은 나를 만들어 준다. 깊은 밤 아무 때나 책은 진지한 대화 상대자가 되어준다. 책꽂이에는 소중한 책들이 하나씩 늘어가고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는 위대한 정신들이 숨쉬고 있다.

애초 우리는 출판을 목적으로 모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읽고 생각하기를 거듭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글을 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 권의 책으로 묶게 되었다. 우리 문예지의 이름은 글토피아이다. 그 일호는 서툴지만 소중한 책이다. 우리는 책과 함께 10년을 걸어왔다. 앞으로 10년을 걸어갈 것이다. 벌써 설레고 기대된다.

“사역으로서의 모금”

이금희 교수
Director of External Affairs and Development

어떤 모금 전문가는 현대 사회의 사람들을 네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한다. 바로 ‘주는 자’, ‘받는 자’, ‘걷는 자’, 그리고 ‘구경하는 자’이다. ‘주는 자’는 기부자를, ‘받는 자’는 수혜자를 말한다. ‘걷는 자’는 ‘주는 자’와 ‘받는 자’를 이어주는 연결자이다. ‘구경하는 자’는 ‘주는 자’, ‘받는 자’, 혹은 ’ 걷는 자’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로, 이러한 기부 문화에 굳이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 가운데 ‘걷는 자’인 모금가의 역할인 사람을 상대로 돈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모금은 필요하며 그 누군가는 담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공통분모 위에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서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구걸하지 않으면서 재정 후원을 요청하고, 강요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사명과 비전에 초대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우리는 어떻게 모금을 달갑지는 않지만 해야만 하는 활동으로 간주하지 않고, 소망이 가득한 사역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모금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직면하여, 모금과 기부 양면에 깊숙히 관여 했던 헨리 나우웬이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복음적인 관점에서 제시한 모금의 의미를 짚어 봄으로써 모금에 임하는 바른 자세를 세워보고자 한다.

첫째, 모금은 사역이다. 즉 모금은 어떤 문제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사역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 우리의 비전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사명에 초대하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비전과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핵심이다. 비전을 잃으면 방자해지고 사명이 없으면 방황한다(잠 29:18). 모금은 우리의 비전과 사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구걸의 정반대이다. 이처럼 모금은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으면서 사역으로서의 모금을 통해 사람들이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이 소유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둘째, 모금은 회심에로의 부르심이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재정이 필요한 사람과 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된다. 모금자이든지 기부자이든지 간에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은 우리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다(사 43:19). 모금사역에서의 회심은 기부자와 모금자 사이에 진정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먼저는 모금자에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요구한다. 즉, 모금자는 모금활동에 있어 정직, 존중, 고결, 공감 및 투명성이라는 모금 윤리에 바탕을 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또한 모금자와 기부자 모두 우리의 안전 기반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봐야 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사역의 한 형태인 모금은 설교나 기도나 환우를 위로하는 것이나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 만큼이나 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모금은 새로운 영적 교제로의 초대이다. 사역으로서의 모금이 하나님의 친교와 서로 간의 친교로 함께 참여하자고 우리를 부를 때, 이것은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우리가 기부를 요청한다는 것은 곧 새로운 교제를 통한 새로운 소속감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공동체의 확장이라 볼 수 있다. 모금의 주체는 돈이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치를 공유하는 친구이자 동역자로서, 진정성에 바탕을 둔 지속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을 모금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복음적인 시각으로 조명해 볼 때, 모금은 사역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인 사역이며, 그러한 ‘사역으로서의 모금’은 모금과 기부에 참여하는 모두를 회심하도록 초대한다. 또한 모금 사역을 통해 만들어지는 공동체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이 모든 일들이 끝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앞당기는 것이다.

"그대, 내게 봄을 주는 사람"

송경화 교수
Director of MACP Online

올겨울 남가주에 마치 한국의 장마철처럼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나름 혹독한 겨울의 위용을 떨치더니, 그것도 시간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새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이 완연하다. 나는 어릴 때 겨울의 흰 색과 청량한 찬 공기를 무척 좋아했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봄의 따뜻함이 더 좋아진다. (나만 그런 건 아닐거라고 생각해 본다..) 봄볕은 꽁꽁 얼었던 만물을 스르르 녹이고, 친한 사람들과 함께 밖으로 뛰어다니고 싶게 만드는 것 같다. 훈훈함과 생동감의 에너지의 계절이다.

힘든 사람은 그 마음이 겨울이라고 누군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난다.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느낄 수 없고, 마음이 칙칙하고 어둡고 차가운 상태로 있는 것이라는 뜻일게다. 그래서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괴롭다. 이런 한 겨울인 마음에 봄을 불러 줄 수 있는 것이 상담이다. 상담은 차가운 겨울 기운을 몰아내고,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며 그동안 묻혀 있었던 그 사람의 연한 순이 새싹으로 돋아날 수 있게 도와주는 귀한 사역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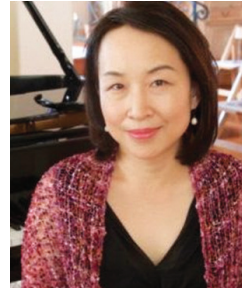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눅4:18-19)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도 하다. 나는 여기서 포로된 자, 눈 먼 자, 눌린 자를 마음이 그런 사람으로 이해한다. 과거의 아픈 기억과 상처의 포로가 되어 거기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보지 못하는 눈 먼 자들, 그리고 악한 영의 거짓말과 짓누르는 무게의 상처로 눌린 사람들은 한 마디로 마음이 겨울인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아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영혼을 치유하여 이들에게 자유와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은 상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시키신 일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된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됨에 따라 더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상담을 잘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혼들을 보내주신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따뜻한 봄을 전해주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은 특정 "소명인"이 배워야 할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든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다.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결국 상담을 해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담은 심리학 공부와 실습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운전을 배울 때도 필기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핸들을 잡고 운전 연습을 해 보지 않으면 절대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심리학 공부 백날 해 봐야 상담실습이 빠지면 상담을 할 수 없다. 우리가 다니고 있고, 다녔던 월드미션 대학교의 상담 프로그램의 가장 진수는 바로 이를 위한 상담실습과 슈퍼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가진 대학교는 손에 꼽을 만큼 적고, 한국어 대학으로는 유일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학교의 상담 프로그램으로 인해 감사할 뿐이다.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을 더 잘 익혀서,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의 사람들에게 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래 본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므로…

“노트르담 악파”
Notre Dame School of Polyphony

2019년 4월 15일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사랑받아온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길에 휩싸이는 마음아픈 현장을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와 SNS를 통하여 하루종일 이 대성당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저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0살때 부모님과 노트르담 대성당을 방문했을 당시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외관의 웅장함 뿐 아니라 내부의 아름다운 구석구석, 그리고 특히 오르간을 기억합니다. 또한 세월이 지나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수년간 서양 음악사 수업을 강의하면서 매 학기 학생들에게 이 대성당이 서양 음악사에 남긴 업적에 대하여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서양 음악의 발전역사를 살펴 볼때에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초기의 음악형태는 단선율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필기 도구나 학습 방법이 발달되기 이전이고 모든 음악교육은 구전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단순한 형태 만이 가능했지요. 중세시대에는 공식적인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음악만이 허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회 안에서 모든 음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11세기에 발전된 다성 선율의 구성은 음악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준 중요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1160년경 건축되기 시작한 바로 이 노트르담 성당에서 오르간 주자로 또한 음악감독으로 교회를 섬기고 후진 양성에 힘썼던 두 명의 중요한 음악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레오닌과 페로틴입니다. 이 두사람은 12세기 노트르담 악파 라고 불리우며 이전까지 굉장히 기초적이며 단순한 형태의 시도만이 진행되었던 다성음악을 다음단계로 발전시켰습니다. 레오닌에 의하여 음악 역사상 최초로 리듬의 구분이 나뉘어 지고 여섯 종류의 다양한 리듬믹 모드가 체계화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리듬이 이곳에서부터 발전되기 시작 되었다니 흥미롭고 중요한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로 구전에 의하여 음악교육이 이루어지던 이 시기에 리듬의 체계화는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2성 또는 3성부의 선율이 각각 다양한 리듬을 선보이며 때로는 정적으로 때로는 동적인 움직임으로 여러 다양한 표현을 하게 된 것이지요. 레오닌의 이러한 시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인 챤트는 본격적으로 발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레오닌과 동시대의 음악가인 페로틴은 이제까지의 레오닌의 활약에 힘입어 더욱 한 단계 높은 선율의 발전을 꾀하게 됩니다. 페로틴을 통하여 4성부라는 복잡한 형태의 곡들이 이미 12세기 말에 나타나게 되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페로틴은 레오닌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리듬을 활용하여 당시대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과 새로운 도약을 꿈꾸게 도와준 선한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 다. 레오닌과 페로틴의 작품에 관심있는 분들은 월드미션대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Sarah Fuller의 The European Musical Heritage 에서 좋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노트르담 악파 혹은 레오닌, 페로틴 같은 이름이 친숙하거나 그들의 음악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과 공헌은 바로 이어지는 13세기에 발전된 쟝르인 모테트를 살펴 볼때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이 두사람의 작품들 중 리듬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부분이 발췌되어 더욱 많은 가사가 붙여진 쟝르가 13세기 이후 빠른 속도의 서양음악 발전을 가져온 모테트 입니다. 모테트 의 발전은 14세기까지 이어지는 동안 찬송가인 챤트의 원어인 라틴어가 아닌 프랑스의 자국어를 가사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 뿐 아닌 세속의 가사를 사용하게 된 부분 등이 발전 그리고 무리한 변화를 진행하던 중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는 르네상스 이념을 음악으로 접목시키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서양 음악사 수업을 택하는 학생들이 초기단계에 접하는 낯설은 이름 노트르담 악파는 위의 내용과 같이 분명 후세의 음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종류와 크기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느 시대에 태어날지에 대한 선택권도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인정하며 그 은사를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는 일이 아닐까요. 비록 지금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각자의 노력이 열매 맺도록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묻어나와 어느 순간인지 알지 못하는 때에 계획하지 못하였던 방법으로도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상당부분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우리 모두 마음이 아픈 이 때에 12세기 그 장소에서 일어난 두사람의 공헌으로 인하여 발전된 서양 음악사의 한 부분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호학과 신설”

Christine Cho 교수
Director of RN to BSN

interview

2019년 3월 28일 목요일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관련해서 Christian Cho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담았다. 간호학과는 월드미션대학교가 예전부터 그려오던 비전 중 하나이다. 월드미션대학교가 30주년이 되면서 그 비전이 현실이 되었다. 앞으로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는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 다른 간호학과의 차이점과 장점은 무엇인지 관련해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월드미션대학교 최은기자가 진행했다.

RN과 BSN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RN은 Registered Nurse, 면허 간호사입니다. 면허 간호사가 모두 4년제 학사학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간호사는 준학사(Association degree) 만으로도 RN 즉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 간호사들에게 빠르게 변화하는 건강간호 현장에서 리더십 능력을 갖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게 되므로, 면허를 가진 준학사를 가진 간호사들에게 간호학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번에 월드미션대학교에서 개설한 RN to BSN 과정입니다.

간호 준학사(Association degree)와 Bachelor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준학사와 Bachelord의 차이점은 리더 즉 간호관리자 혹은 간호행정가로 되기 위한 자질을 키우기 위한 전문지식들 예를 들어 리더쉽, 간호관리학 등을 증거기반 학습을 통해 학업하는 것입니다. 총 18개월(3학기) 동안 36학점을 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신학대학교 이므로 추가로 방학 중 신학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 학비가 저렴하다고 들었는데, 다른 학교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인근 대학교의 RN- BSN 과정의 학비는 최소 2만 불입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도 RN-BSN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입학 경쟁률이 높고 장기간 기다려야 합니다. 저희 월드미션대학교 에서는 RN- BSN 을 처음 신설하였기 때문에 12,000불의 저렴한 학비로 학생들에게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유학 오는 학생의 경우 I-20 학생 비자를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유학 오시는 분들의 목적은 간호사로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간호사로 취업을 하게 되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때 반드시 영어 비자 스크린을 통과해야 합니다. 비자 스크린을 통과하는 조건은 아이엘츠(스피킹 7, overrall 6.5) 혹은 토플에서도 고득점을 받아야 하고, 한국 간호사들의 경우 영어 비자 스크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의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간호학 학사 Bachelor를 취득한 경우 영주권을 위한 비자 스크린, 즉 영어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간호학 Bachelor를 기존에 이미 취득한 학생이 미국에 유학생으로 와서 저희 월드미션대학교의 RN- BSN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미국 Bachelor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시 비자 스크린을 면제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대체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비자 스크린의 영어 시험을 통과하려면 1.6개월에서 2년 정도를 소요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RN- BSN과정을 거쳐서 간호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시간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합리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간호학 수업은 영어로 하나요?

첫 학기에는 지금 한인 지역 사회에 있기 때문에 한국어 수업을 하지만 내년부터는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의 Nurse Practitioner 겸임교수가 영어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ESL수업을 오픈해놓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한국 학생들에게 한 학기 정도 한국어로 진행하고, 두번째 학기부터는 영어 강의로 점차 확장하려고 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 개설은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희 대학이 30주년 되면서 간호학과 설립을 꿈꿔오다가 '변화를 리드하는 월드미션대학교', 또 '나를 변화시키는 대학' 으로 비젼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월드미션대학교의 비젼과 같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좀 더 자기 계발을 통해 자신의 변화를 시도하고 싶은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RN to BSN 프로그램을 선택해야할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는 사랑과 희생이 없이는 하기가 어려운 직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의 사랑과 봉사는 간호학의 나이팅게일 정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한국에서의 22년간 동안의 간호학과 교수시절 의료선교봉사활동을 학생들과 더불어 14년 정도 하면서 인간이 육체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게 되고,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수없이 체험하였습니다.

이제 30주년이된 월드미션대학교는 인간의 영적인 돌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돌봄도 치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월드미션대학교에서의 간호학과 신설은 시대적 흐름에 걸맞는 행보라 생각합니다.

“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

강동완(졸업생)
M.Div (두드림교회 담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 할 찌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렘9:23-24) 이 말씀은 처음 성경을 열었을 때 마음에 새긴 말씀이며, 나의 신앙의 시작 점이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날까지 내 신앙의 기준이 될 것이다.

나는 대학 1학년 남들과 같이 학점을 따기 위해 참여한 채플시간의 예배 경험이 나의 인생을 바꿔놓은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당시 인생에서 설교라고는 처음 듣던 그날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 하겠다 ’고 용기 있게 손을 들고 강단 앞으로 나갔던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후 6년이 지나 1990년 12월 미국에 오면서 시작된 교회 생활은 첫 날부터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에 매료되어 버렸고, 목사님의 설교에 마음을 다 빼앗겼다. 매 주일 마다 예배시간이 그렇게 기다려 진 것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을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좋았다. 1991년 섬기던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정식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나 1993년 결혼을 하고도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계속 기도 했다. 1994년 Northridge 지진은 사람들에게는 큰 환란이었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기도응답이었다. 드디어 주일예배를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 때 감격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다. 2005년, 그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신학교에 가서 음악공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갑작스런 권면에 나는 주저 없이 학교를 찾았고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음악과에서 공부하면서 성악을 전공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찬양사역에 필요한 부분을 배우고 나머지 학업을 신학으로 바꾸어 공부를 하다 2009년에 신학으로 월드미션대학교 BA과정을 졸업하게 되었다.

2010년 말에 수 개월 동안 아파왔던 다리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서, 오른 쪽 다리를 절단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의사의 말과 함께 나는 삶과 죽음이라는 극한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나에게 그 때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의 충만함이 내 속에 채워지면서 “암” 이라는 의사의 진단 소식과 아울러 제게 찾아온 절망감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당시 우리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인데서 나의 암 소식과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소식을 아이들에게 전하자 가족들은 순식간에 울음 바다가 되어 버렸으나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해 울 수 없었다. 나 자신이 지금 무너져 버리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 ‘눈물을 보이지 말자’ 고 결심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선포했다. 이 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이 선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심으로 나의 질병으로 인해 우리 가족이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가족에게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치료 과정에서도 앞장서시고 함께 해 주셨다. 시편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의 참 의미를 명확하게 깨우쳐 주셨다. 아울러 계 3:8 “볼 찌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으로 병상에 있는 내게 큰 위로와 힘을 주셨다.

그렇게 감사하며 지낸 5년의 세월이 흘러갈 무렵인 2015년에 다시 암이 폐로 전이가 되면서 폐를 일부 절단 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 때 또 한번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나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로봇수술 전문의를 만나게 하셨다. 의사와의 첫 만남에서 바로 제 수술을 담당해 주시겠다는 확답을 듣게 하셨다. 이 후 USC대학병원에서의 수술과 재활 과정을 지나면서 이대로 천국을 가는 것도 좋은데....하나님은 ‘왜?’ 라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주시는 이유’에 대해 깊은 묵상을 하게 하셨다. 그 때 비로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았다. 저는 하나님 바로 이것입니까? 라는 외침과 함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직접 듣고 싶었다) 그 날 학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월드미션대학교에서 M. Div 과정을 시작해 졸업을 앞에 두고 있다.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말씀으로 바른 그리스도인을 양육해야 한다는 책임과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지난3년간 M.Div공부 하는 동안 하나님의 손길은 쉬지 않고 물질과 건강으로 채워 주셨다. 그렇게 학교를 다니며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던 중 2018년 3월 첫 째 주에 11년간 두드림 교회를 섬기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청빙을 받아 가시면서 담임 목사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게 지금 두드림 교회의 2대 사역자로 섬기게 하셨다. 처음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허락하신 바램과 기도대로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그리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

지난 3년의 월드미션대학교의 M.Div 온라인 과정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한다. 교수님의 강의와 교수님과 학생들의 Feedback은 나에게 폭넓은 지식과 풍성한 경험을 하게 해주어 매 시간을 기대하게 했다. 현재 사역자로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면 월드미션대학교에서 학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온전한 도구로 훈련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시 한 번 월드미션대학교와 교수님들 그리고 모든 학우들께 감사를 드린다.

“ 경고를 무시하지 말자 ”

히브리서 3장 12~19절

최은(졸업생)
BABS

오늘 본문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편지를 처음 본 독자들은 원래 유대교인이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갖자 기쁜 마음으로 궁핍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행보는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지속되는 고난은 그들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원자인지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신앙이며, 그 결과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을 져 버리게 하는 환경은 무엇인가요? 저는 ‘분주함’이라 생각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쉴 틈 없이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주한 삶의 위험성은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찰스 험멜은 그의 저서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급한 일이 끼어들어 중요한 일들을 밀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이지요. 따라서 분주함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분주한 삶으로 우리 우선순위에서 밀려 나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기도’를 꼽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0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까? 급한 일이 더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분주함 속에서도 기도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분주함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했던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는 24시간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성서학 교수가 되어 강의와 설교를 했습니다. 강의 준비를 위해 밤잠을 줄이고 성경을 연구하고, 많은 주석을 집필했습니다. 그가 그 수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기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목숨걸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하나님과 갖는 교제시간을 빼앗기면 우리 영은 죽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이 경고를 마음에 꼭 새겨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평소보다 5분 빨리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밤에 기도하는 것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편이 더 집중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핸드폰 알람을 맞춰놓는 겁니다. 알람이 울리면, 하던 모든 일을 잠시 중단하고 5분 동안 기도하거나, 예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러한 작은 몸부림이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합시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 5분,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 살 길이고 바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인 환경을 뛰어넘는 강인한 기도 용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MU 2023 발전 계획

임성진 박사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기독교 종합대학교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를 세우다(2019-2023)

개교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설립정신인 기독교 정신을 끝까지 지키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교육 공동체로 발전하고자 하는 월드미션대학교의 결연한 의지는 기독교 종합대학교의 비전에 담겨져 그 초석을 세워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월드미션대학교는 지난 30년 동안 세계 선교를 위한 선지 동산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으며, 목회자 뿐만 아니라 학문의 여러 전문 분야에서 학문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훈련된 자들이 필요한 이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독교 종합대학교로 발돋움하고 있다. '말씀으로 변화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월드미션대학교'라는 학교 표어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이제는 이민 사회의 자랑이 되는 학교에서 더 나아가 명실상부한 기독교 종합대학교로서의 기초를 세움으로써 국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학교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4대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첫째, 중국계, 라틴계 등 타문화권에 속한 학생들을 교육함으로써 국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학교로서의 위상을 세워나갈 것이다. 둘째, 기존 한국어 Track 프로그램과 더불어 영어 Track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한국어와 영어 병행 교육을 해 나감으로써 보다 넓은 층의 학생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본교는 미국의 한인들에 의하여 시작된 고등교육기관이다. 그래서 한국어로 교육을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에 있는 만큼 영어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이다. 영어 프로그램을 위하여 영어권 교수와 교직원을 영입하여 한인 1.5세 2세들을 교육하고 미국내 타인종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미국의 주류 속에 설 수있는 학교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셋째, 사역 속에서 멘토링을 통한 교육을 시행할 것이다. 이론중심 교육에서 이론과 목회역량이 균형을 이룬 목회역량교육(Competency-Based Theological Education: CBTE)과 같은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적극 수용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을 강화 함으로써 교육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이며 궁극적으로 온라인 대학을 독립시킬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미서부학교대학연합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 인가기관에 가입할 것이다. 그동안 기독교교육 인가단체에서 받은 인가는 일반 대학교와 교류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 WASC 에 가입함으로 간호학과와 경영학과 등 다양한 학과 개설 및 일반 상위학교로의 진학 또는 학점 교류 등을 도모할 것이다.

'오직 복음' 이라는 설립자 임동선 목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선교를 위해 정진해 온 월드미션대학교는 이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더욱 국제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학교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지난 30년을 그루터기 삼아 앞으로 또 다른 3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기필코 세계의 유수한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바람직한 교육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주님이 주인되는 학교로서, 주님과 함께 걸어온 지난 날을 감사함으로 돌아보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사 43:19)는 주님의 약속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학교로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다.

WMU 후원 현황 및 안내

월드미션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2018년 1월 1일 부터 2019년 5월 20일까지 납입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운영이사 후원
김광돈 김대성 윤경호 윤성환 임승향 정성길 최학선

화평이사 후원
백현님 성병현 양베티 최상영

동문 후원
Springer, Oksun 강인제 강태준 김대준 김대호 문명상 민창식 박선우 성지혜 심동호 안승태 양보경 유광미 유민영 유정인 이미란 장재민 장코스모스 최비키 최상영 황요셉

WEMA 후원
LA 디사이플 교회 김진광 메시아미션교회 샌디에고선한목자교회 알라스카OMC 웨마 유타소망교회 콜로라도OMC

기도 후원
김추자 여성락미션OMC 윤기성 임금화 조배성

학생식사 후원
이찬영 학생회

장학금후원
LA 온누리교회 LA 비전교회 LA 사랑커뮤니티교회 갈릴리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새누리교회 생명수교회 서원복 송정명 아이엠쳐치 월드피플교회 윌셔크리스천교회 임마누엘글로리교회 템프한인장로교회

지정장학금 후원
Aura, Lopez Lambert, Michael LA비전교회 Nam, Punda 강지원 글로벌파트너USA 더쳐치오브갓스미션 로스펠리스감리교회 미주로고스장로교회 미주성시화본부운동 미주평안교회 박선희 배차냥 백광세 밸리라이프 침례교회 비전장로교회 콜로라도 새생명미션교회 새생명비전교회 선 & 해나박 파운데이션 스테이트오브켈리포니아 심동호 예은장로교회 엄한광 원바디파운데이션 윤성환 윤일흠 은빛은혜빛한인교회 이금희 이에드문드 임두용 임승향 정봉모 조케더린 조혜자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파운데이션 콜로라도뉴라이프미션교회 한국베델장로교회 한국필그림침례교회 한빛교회 홍우규

중국학생장학금 후원
Springer, Oksun Zhao, Ping 강자넷 김대성 김에스더 김학철 김현경 김희열 데이비드유 DMD 박선희 백광세 시몬 &조 이홍 파운데이션 심동호 윤성환 이금희 이제시카 임성진 임승향 임종호 정미영 정은주 최엔드류 월드미션 최학선 한제임스

아프리카학생장학금 후원
ANC온누리교회 Bank of Hope Misemet 인터내셔널 OMC 강일준 강주혜 강태준 고돈범선 구자경 김경세 김경준 김광돈 김규호 김금자 김기성 김대성 김대진 김대호 김선빈 김선애 김소연 김영수 김영순 김원석 김응수 김제인 김학송 남윤희 남종성 남진주 로영호 류시하 박숙경 박옥그레이스 박옥순 박윤우 박이원 박이인 박정애 박제영 박종명 방승신 배미원 백소피아 백윤조 서정민 서계숙 송운철 송인서 송정명 신상우 신선묵 신정란 심동호 심종택 안승태 오광탁 오용주 오위영 옥기협 옥동숙 윤명주 윤성환 윤에스더 윤임상 윤제인 이경희 이금희 이기영 이기자 이명재 이문옥 이성기 이소희 이실비아 이에드문드 이영주 이준성 이진희 이크리스틴 이형수 이혜선 이홍주 임경자 임금화 임성진 임양택 임종호 임철현 임현숙 장병현 장재민 장코스모스 정명호 정미영 정민경 정성길 지성자 채정원 충현선교교회(GSF) 최고명순 최문환 최비키 최윤정 최지예 프라임라인 인슈런스 학생회 한금리 한나나 현영미 홍명식 황석진 황호진

학생뮤직페스티발 후원
김청익 뮤직 디파트먼트 안정희

기타 후원
Mak, Kevin Mak, Ronald 강명금 강인제 강태준 김경준 김경해 김박선미 김에스더 남종성 데이비드유 DMU 라크마 류시하 미주평안교회 박옥그레이스 백케이트 송운철 신선묵 신양미 심동호 안정삼 에브리네이션스미션 윤명주 윤성환 윤임상 이명옥 임성진 임승향 임종호 정성길 정종원 정현정 정희란 조재옥 최윤정 하충남

2019년 후원
LA디사이플교회 LA 비전교회 LA 프레이어마운틴 강자넷 강태준 김경준 김대호 김민송 김성심 김에스더 김해나 김희열 금미화 다우니아드가페교회 로널드&베티맥 만남미션(유광미) 민동기 멘탈헬스패밀리미션 메시아미션교회 문현주 박선우 박선희 배기복 백광세 배디나 배차냥 백주영 선한목자교회 새생명비전교회 샌디에고 씨애틀OMC 양베티 이금희 이기자 이미란 이상미 이혜숙 임성진 염조이스 유민영 유정인 윤성환 정미영 정성길 정봉모 정승현 처치오브갓스미션 충현선교교회(GSF) 최상영 최윤정 최학선 콜로라도OMC 템프한인장로교회 황경수

WMU News

2019년 봄학기 입학설명회

1월 7일(월)과 8일(화)에 OC 캠퍼스와 LA 본교에서 입학설명회가 열렸다. 본교 입학에 관심있는 예비 신입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학과 지도교수와의 개별상담과 재정보조에 관한 상담이 제공되었다.

봄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봄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환영회가 1월 22일(화) LA 본교에서 열렸다. 이 날 오후 3시부터 LA 본교에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등록 및 행정사항(도서관 계정과 무들계정 생성, 학생증과 주차증 발급 등) 진행과 교무처, 사무처, 학생처, 도서관에서의 행정 안내 및 상담실 소개가 있었다. 6시부터 카페테리아에서 진행된 신입생 환영회에서는 저녁 만찬과 더불어 교수 및 직원소개, 신입생 소개 (온캠퍼스 및 온라인), 학생회 소개 등의 시간이 있었다.

2019년 봄학기 개강 예배

1월 29일(화) 화요채플을 봄학기 개강예배로 드렸다. 이 날 임성진 총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각자의 소명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며 회개와 은혜충만을 간구하는 기도의 생활을 강조하였다. 이번 봄학기도 주님의 은혜로 학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개강예배를 통해 월드미션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라틴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본교 라틴 아메리칸 프로그램의 봄학기 오리엔테이션 및 입학설명회가 1월 5일(토) 오전 11시부터 6층 학생 라운지에서 있었다. 미국 내 히스패닉 선교와 중남미 선교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개설된 본교 라틴 프로그램(디렉터 이준성 교수)은 현재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약 40여명의 라티노 학생들이 학부과정과 수료증 과정에서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을 공부하고 있다.

개교 30주년 기자 간담회

본교는 올해로 개교 30주년을 맞아 미래를 향한 도약을 다짐하며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지난 1월 24일(목) 오전 기자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가 올해 개교 30주년을 맞아 학술세미나를 비롯해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한다. 또한 간호학과 신설 등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이 자리에는 임성진 총장을 비롯해 학과 교수진 등이 참가했다. 임 총장은 “지난 30년은 학교가 여러 인가를 받고 기반을 세우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 30년은 변화를 주도하는 학교로 성장할 것”이라며 30주년을 맞는 소감을 밝혔다.

2019년 교직원 일동

기독교의 "더불어" 윤리 정재현 교수

2월 12일(화), 14일(목) 양일간 정재현 교수의 학술 강연이 있었다. 정교수는 첫 번째 강의 주제는 '고통에 대한 오해와 대안 – 인문학적 성찰을 통하여' 였다. 고통에 대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다루었다. 고통당하는 자를 보면 그가 과거의 죗값으로 벌 받고 있다고 '인과율적'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미래를 위하는 과정이라고 '목적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익숙한 사고 전개지만 전자는 숙명주의에 빠지게 하고 후자는 인간을 수단화시킬 수 있다. 이에 정교수가 제시한 대안은 '더불어' 개념이다. 인과론적·목적론적 사고가 타자를 향한 언어라면 '더불어'는 이미 원초적으로 관계성이 내재되어 자기 자신도 포함하는 언어다. 고통당하는 자 앞에서 정죄나 어줍잖게 고통의 해석을 하기보다, 예수께서 친구의 죽음에 찾아가서 그러셨던 것처럼 단지 더불어 아픔을 나누는 것이 인간에게 먼저 필요할지 모른다. 그는 결론적으로 기독교 안에 있는 더불어의 윤리를 강조했다.

" 인간중심의 4차산업" 전요섭 교수

2월 5일 본교 채플실에서 성결대 전요섭 교수의 강의가있었다. 3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첫번째 시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 상담"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다뤘다. 전 교수는 로봇과 계시록이라는 단어의 합성된 신조어 '로보칼립스' 라는 단어를 설명하여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으로 인한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중심의 4차 산업'이 되어야 하며, '인간소외의 사차(死次) 산업'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은혜의 방편 가운데 기도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심리적 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있어서 변함없는 수단이며, 하나님과 성령의 초월적 능력을 요청하고 체험하는 가장 본질적인 치료적 방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영적 치료라는 것은 인간 문제의 치료와 회복, 그리고 변화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은혜의 방편으로 연결하여 그 능력을 힘입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반상담 및 심리치료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기독교 상담의 영역을 강조했다.

신선묵 교수
Vice President

"1989년 설립 이래 꾸준히 성장하여 미주의 대표적인 한인기독교대학교로 자리매김한 월드미션대학교가 올해로 개교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날 상대주의가 팽배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사회, 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의 지형이 위축 국면을 맞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현장도 패러다임 전환을 겪고 있고 특별히 기독교 대학교들이 존립에 관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변화와 도전 속에서 기독교의 진리와 교육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월드미션대학교는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금번에 개교 30주년을 맞이하여 변화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학교가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학교가 되고자 핵심 모토를 "변화하는 시대를 리드하는 월드미션대학교"라고 정하고 이에 걸맞는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술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의 현상과 대응에 관한 퍼스펙티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지난 2월 5일(화)에는 한국복음주의 상담학회 회장 전요섭 교수(성결대 교수)를 모시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 상담"이라는 주제로 상담학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화)와 14일(목)에 걸쳐 한국 종교학회 종교철학 분과 위원장 정재현 교수(연세대 교수)를 모시고 "고통에 대한 오해와 대안 - 인문학적 성찰을 통하여," 와 "무엇을 믿는가? - 신앙에 대한 철학적 성찰" 이라는 주제로 신학과 인문학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둘째, 7월 16일(화) 오후 6시에는 본교 음악학과가 주최하는 개교 30주년 기념 연주회를 디즈니 홀에서 갖습니다. 이 연주회를 통해 우리가 현재 서있는 위치와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그 동안 걸출한 음악가들을 많이 배출해왔고 이들은 현재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동문이 작곡한 작품을 연주할 뿐만 아니라 교수, 재학생, 그리고 세계 곳곳에 진출해 있는 동문 음악인들이 출연하여 화합을 다지고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셋째, 9월 말에는 〈말씀과 선교〉 학술지를 30주년제작할 것입니다. 이번 학술지의 주제는 "성경과 사역, 새로운 사역 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 (The Bible and ministry, an on-going dialogue for the newly emerging ministry environment)" 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사역은 필요할 수 밖에 없으나 그것은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기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우리의 학문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방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현재 월드미션대학교는 간호학과 (RN to BSN) 개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 종사할 기독교 전문인 양성의 목표를 가지고 간호학과 개설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치료와 영적인 건강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간호 지도자 양성을 위한 이 프로젝트에 교수 확보, 시설 확충, 인가 방안, 커리큘럼 개발, 행정 진행 등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모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 2일(토) 오후 6시에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후원의 밤을 개최합니다.

다섯째, 월드미션대학교의 3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자 디지탈 화보집을 발간합니다. 과거의 기억은 미래의 거울이 되는 중요한 산물이기에 우리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아름다운 전통을 구축해 나가는 의미있는 작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개교 30주년 화보집은 우리의 행보를 열어가는 보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에 많은 기대가 모아집니다.

그 밖에 동문들을 초청하여 사역 현장의 소식을 나누고 본교 발전의 기대를 모으는 홈커밍 데이가 10월19일(토)에 계획되어 있고, 재학생들의 자발적인 모금활동인 달란트 운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됩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안팎으로 많은 변화의 물결에 직면해 있지만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서 변화를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이끄는 모범적인 학교가 될 것입니다.

학생수련회

학생수련회가 신입생, 재학생, 교수들이 함께 한 가운데 3월 16일(토) Rancho Ybarra Camp에서 열렸다. 이 날 수련회 강사로는 본교 학생처장인 송운철 교수가 나섰다. 송 교수는 '소원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진정한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소원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그 소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된 자아상이 치유되는 것을 전제한다고 했다. 학생회에서 준비한 풍성한 점심식사와 레크레이션으로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학업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휴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교축제

설교축제가 3월 28일(목) 채플시간에 있었다. 이 날 본선에 진출한 학생은 각각 히브리서 3장 12-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본선에 앞선 원고심사에서는 10분 분량의 설교원고와 청중(Context)에 대한 설명서가 요구되었으며, 심사기준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본문 주해, 그리고 오늘날의 적용 부분이 제시되었다. 설교축제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1등: 최은 학우 (BABS)
2등: 지미리 학우 (M.Div)
3등: 박승환 학우 (BAM)

교수세미나

가을학기 준비를 위한 교수세미나가 3월19일(화) 오전 10시부터 608호 강의실에서 있었다. 가을학기 시간표가 확정된 가운데 이번에는 본교 e-library 사용법에 대한 김서영 사서의 특강이 있었다.

스프링 페스티벌

4월 23일(화), 25(목) 본교에서 스프링 페스티벌이 열렸다. 학과별 축제 장터와 워십콘서트, 공개강의 진행의 프로그램은 친구들을 초청하여 학교를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OC캠퍼스에서도 4월 22일(월) 부모와 자녀갈등 이라는 주제로 (송경화교수) 공개강의가 진행되었다. 본교 공개 강의로는 포로 후기문학들(조내연교수), 소그룹가 성경교수법(남종성교수), 소그룹의 단계와 전략(강일준 교수), 다윗의 열쇠(정종원교수), 칼빈의 제네바 개척과 이민사회(송인서교수), 동서양의 문화적차이(박숙경교수), 내면가족체계IFS 상담(송경화교수), 로마서(송운철교수)가 진행했다. 특별히 학과별 장터에서는 재학생 뿐 아니라 교직원과 동문들이 참여해 소통과교제의 장이 되었다. 학과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과별 단합에 크게 한몫했다. 이날 여름단기선교팀은 후원금 마련을 위해 옷과 장신구들을 판매 했다. 워십콘서트 찬양 인도로는 엘에이 지역에서 크게 영향력이 있는 박지범 목사(화), 박종술 목사(목)이 음악과 학생들과 함께 진행해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스프링 페스티벌이 학교의 축제를 넘어 이웃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장이 되길 더욱 소망한다.

리더십의 변화와 함께 성장해 가는 월드미션대학교

본교 1회 졸업생으로서 1999년부터 월드미션대학교 신학과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하는데 헌신해 온 임성진 박사가 2018년 6월 제 3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임성진 총장의 리더십 하에 기독교종합대학교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한 월드미션대학교는 이제 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매일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리더십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2대 송정명 총장은 2012년 6월 취임하여 2018년 6월 퇴임하였다. 송정명 총장은 임동선 초대 총장의 고귀한 설립정신을 받들어 월드미션대학교를 한 단계 성장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1

1. ATS 정회원 인준
2. 1989년월드미션대학교설립자임동선목사
3. 2대 송정명 총장과 3대 임성진 총장

2

3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해 가는 월드미션대학교

1. 라틴 프로그램 시작
2. 오렌지카운티 기독교상담학 석사 프로그램 시작
3. 교회음악박사 프로그램 시작
4. 아프리카 프로그램 시작
5. 2018년 NGO와 선교세미나
6. 비영리단체 사역자 수료증과정

다채로운 행사로 지역 주민을 섬기는 월드미션대학교

1

월드미션대학교는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인 지역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높여왔다고 자부한다. 또한 지역 성도와 목회자를 위해 남종성 교수의 단기 코스 헬라어교실 및 히브리어 교실을 열어 커뮤니티를 섬겨왔다. WMU 상담교실 역시 지역 주민들에게 열려있는 강의로 김현경 교수가 결혼, 개인성장, 육아, 관계 등 의 주제에 대한 지식과 통찰을 나누고 있다.

2

3

1. 2018년 음악회
2. 김현경 교수의 WMU 상담 교실
3. 남종성 교수의 헬라어 & 히브리어 교실
4. 2014년 2월 한국기독교상담소 개원
5. 2016년 오렌지카운티 열린 음악회

4

5

2014년 남가주 기독교여전도회연합회(이사장 백현님 권사)가 월드미션대학교에 기숙사 건물을 기증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월드미션대학교 도서관은 크게 성장하여 한국어 전자책을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본교 도서관 공간이 확장된 것은 물론, 오렌지카운티 캠퍼스 도서관을 개관했다.

1. 새로 마련한 Reference Room
2. 2014년에 마련한 기숙사
3. 오렌지 카운티 WMU 캠퍼스 도서관

Competence Based Education

신학교육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인 Competence Based Theological Education (CBTE)는 교회사역 현장에서 필요한 사역 중심의 능력을 개발시키는데 중점을 둔 새로운 신학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를 도입하기 위하여 월드미션대학교는 2017년 8월 캐나다에 있는 Northwest Baptist Seminary와 MOU를 체결하여 CBTE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WMU화보집 아카이브]
를 소개합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출판된 월드미션대학교 헤럴드와
20주년, 25주년, 30주년 기념화보집을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의 생생한 역사를
만나보세요

월드미션 대학교 교가

씩씩하게
Allegro Moderato ♩= 120
임동선 작사
박재훈(1992.5.30)
1.주 님 이부 — 르 — 셨 네 주님 이 부 르 셨 네 추 수 할일 — 꾼 —
2.주 님 이보 — 내 — 시 네 주님 이 보 내 시 네 죽 기 까지 — 충성
6
되 라 우리 를 부 르 셨 네 체력 학 문 연마 하 라 인격 영 력길 러보
하 라 우리 를 보 내 시 네 모든 민 족 제자 삼 아 땅끝 까 지증 인되
12
라 (길러보라) 주 — 님 (주님)이 부 르 셨 네 주 — 님 이부 르 셨 네
라 (증인되라) 주 — 님 (주님)이 보 내 시 네 주 — 님 이보 내 시 네
17
solo piano or orchestra 주 님 만스 — 승 — 삼 은 우 리 월 드 미 션대 학
21
교 주 님 만 을 스 승 삼 은 우 리 월 드 미 션 대 학 교

BRIEF HISTORY OF WMU

1989년 3월 27일 개신교 복음주의에 입각한 영적훈련과 학문 사이에 균형을 이룬
새 시대에 적합한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의 육성을 설립목적으로 월드미션대학교가 설립되었다.

1988. 11. 28	세계선교신학대학 이사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다.
1989. 03. 01	임동선 목사 학장으로 취임하다.
1989. 03. 01	이원희 목사 학감으로 부임하다.
1989. 03. 27	신입생 32명으로 본교 개강, Donald A. McGaveran 박사 초청 개교기념 특별강좌를 개최하다.
1991. 03. 18	신학석사(M. Div., M.A.)가주교육국 인가(BPPVE 94310)를 취득하다.
1992. 08. 18	대학학부 인가취득, 학부를 세계선교신학대학으로, 대학원을 세계선교신학대학원으로 하다.
1992. 09. 27	모스크바 세계선교신학원을 개교하다.
1993. 06. 29	종합대학교로 개편, 명칭을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로 변경하다.
1993. 12.11	총장에 임동선 목사, 부 총장겸 대학원장에 이정근 목사를 선임하다.
1999. 03. 25	개교 10주년 기념예배 및 행사를 거행하다.
1999. 07. 01	주정부 완전인가(Full Approval) 취득. 유아교육과, 평신도학과 인가를 받다.
2003. 01. 08	학교건물을 구입하다.
2003. 08. 23	새 교사이전 감사예배를 드리다.
2004. 08. 30	원격교육센터를 신설하다.
2005. 01. 24	음악학과(BAM/MAM)를 신설하다.
2006. 02. 17	ABHE로부터 Full Membership Status(정회원자격)을 부여받다.
2006. 06. 26	ATS로부터 Associate Membership Status(준회원 자격)을 부여받다.
2008. 02. 20	ABHE, TRACS로부터 일반학과, 상담학과를 인가받아 신설하다.
2009. 11. 03	TRACS로부터 Full Membership Status(정회원 자격)을 부여받다.
2008. 06. 07	원격교육과정 제 1회 졸업생을 배출하다.
2010. 11. 06	임성진 학감 수석 부총장으로 임명하다.
2011. 03. 25	ABHE로부터 Reaffirmation Accredited Status(정회원 재인가 자격)을 부여받다.
2011. 06. 25	ATS로부터 Candidate Membership Status(정회원후보자격)을 부여받다.
2012. 06. 02	설립자 임동선 박사 초대 총장 이임/ 송정명 박사 2대 총장으로 취임하다.
2012. 08. 20	ABHE, TRACS로부터 대학원 상담학과를 인가받아 신설하다.
2013. 08. 09	ATS로부터 Full Membership Status(정회원 자격)을 부여받다.
2014. 01.13	한인기독교상담소 개설하다
2014. 04. 15	TRACS로부터 Reaffirmation Accredited Status(정회원 재인가 자격)을 부여받다.
2014. 06. 07	개교 25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하다.
2014. 06. 25	ATS로부터 Online Comprehensive 인가를 받다.
2015. 05. 29	기숙사 건물을 구입하다.
2015. 06. 16	ATS로부터 목회학석사(M.Div)과정 Residential Exception 인가를 받다.
2016. 02. 02	ATS로부터 상담학석사(MACC)과정 Residential Exception인가를 받다.
2017. 02. 02	ATS로부터 교회음악학박사(DCM)과정 인가를 받다.
	ATS로부터 기독교상담학 석사(MACC)과정 OC Extension Site 인가를 받다.
	ABHE로부터 성서학준학사(AABS), 기독교상담학준학사(AACC)과정 인가를 받다.
2018. 06. 02	2대 총장송정명 박사이임/; 임성진박사3대총장으로 취임하다.
2018. 06 05	ATS로부터 Reaffirmation Accredited Status(정회원 연장)자격을 부여 받다.
2018. 09.10	ABHE 로부터 상담석사를 MA in Counseling Psychology 로 변경 승인 받다.
2019. 03. 06	ABHE부터 간호학학사 (RN to BSN) 과정 인가를 받다.

www.wmu.edu
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

28th Annual COMMENCEMENT • SPECIAL NEWSLETTER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1. 213. 388. 1000 | admissions@wmu.edu